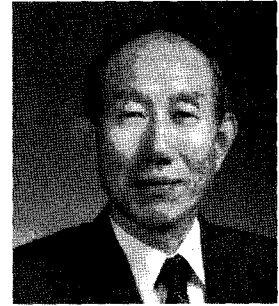


## 「기업물류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의 발전방향」



한국물류연구원  
원장 전만술

본 자료는 지난 9월13일 실시된 2002년 제3차 물류정책토론회(주관:(사)한국물류협회)에서 발표된 한국물류연구원장 전만술박사님의 발표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 □ 서언

기업물류비 산정은 물류활동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원가항목과 계산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의 비용계산처럼 쉽게 할 수가 없다. 현재 기업물류비 산정을 위한 국제간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간의 기업물류비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무의미하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기업물류비 산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설정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어떠한 모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물류비의 총액과 구성비가 크게 달라질수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물류비 산정기준과 방법의 통일성을 기하지 않고 결과치 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성과 취약성이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1. 기업물류비의 회계방식

기업물류비 회계방식에는 물류원가계산제도에 의해서 물류비를 산정해나가는 관리회계

방식과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물류비를 추산해내는 재무회계방식으로 대별된다.

관리회계방식은 물류활동의 관리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현금 지출이 발생되지 않은 기회비용까지도 물류비용으로 산정한다. 재무회계방식은 주로 손익계산서의 물류비항목을 집계하며 또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일부비용을 역산해서 물류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총물류비의 60~70% 수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관리회계방식은 영역별, 기능별, 관리목적별, 물류비 계산을 필요한 시기, 장소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물류활동의 개선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수 있으며 재무회계 방식은 개략적인 물류비 총액계산에 있어서 별도의 물류비 분류, 계산절차 등이 불필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2. 기업물류비 산정기준 모델

국내에서 공포된 물류비 산정기준은 3가지 모델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생산성본부의 기업물류비 계산준칙(KPC 계산준칙),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물류비 산정·활용매뉴얼(대한상의 매뉴얼), 건설교통부의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건교부 계산지침)이다.

KPC 계산준칙은 물류비 계산을 위한 이론적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대한상의 매뉴얼과 물류비 산정과 활용을 위한, 그리고 건교부 계산지침은 물류비산정을 위한 각각의 실무적 지침서에 해당한다.

KPC 계산준칙과 대한상의 매뉴얼은 민간기관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건교부 계산지침은 정부기관에서 제정·공포하였다. KPC 계산준칙과 건교부 계산지침은 물류비 산정에 기준의 목적이 있으나, 대한상의 매뉴얼은 물류비 산정 외에도 활용에 대한 내용을 예산관리와 채산분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1) KPC 계산준칙

물류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 1989년 10월 제정·공포하였으며 전문이하 3장 31조로 구성되고 있다.

#### □ 계산준칙의 특징

- 물류비는 실제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
- 정상적인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계산

- 물류량의 인식기준을 명확히 설정함
- 물류비 계산준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예외원칙 적용

## □ 계산준칙의 평가

- 공헌적 측면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물류비용산정의 모델로 작성되었음.
  - 물류비용산정의 특징인 관리회계방식을 도입하였음.
  - 물류비용을 원가중심(직접·간접비용) 조업도별(고정·변동비용)로 분해하여 물류관리의 지표로 활용토록 함.
- 취약적 측면
  - 물류비용의 산정항목과 방법이 과도하게 이론적이어서 실무성과 현실성이 부족함.
  - 원가회계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는 관리회계방식을 도입하는데 난해하며 어려움이 있음.
  - 물류비용 산정의 대상업종을 제조업과 유통업으로 구분함으로써 물류업에 대한 업종이 애매모호함.
  - 일본의 운수성이 제정한 물류코스트 산정통일기준(1977년)을 참조함으로써 한 국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문이 있음.

## (2) 대한상의 매뉴얼

기업물류비의 산정과 활용에 관해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체계적인 물류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침서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매뉴얼을 1995년 12월에 제정·공포하였으며 물류비의 산출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부분과 설명 부분으로 구성되어 물류관련자와 비관련자에게도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 □ 매뉴얼의 특징

- 매뉴얼에서는 물류회계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통일성 내지는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KPC의 계산준칙을 상위기준으로서 인식하기로 함.
- 물류비 산정기준으로서 일반기준(관리회계방식)과 간이기준(재무회계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물류비관리수준에 따라 적절히 선택내지 상호보완 할수 있도록 함.

- 물류비 절감을 위한 표준원가계산제도와 예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의사결정을 위해 채산분석기법을 제시함으로써 물류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 매뉴얼의 평가

### ● 공헌적 측면

- 기업이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실무적이면서 설명적 측면을 강조하였음.
- 관리회계방식으로 접근하기 곤란한 중소기업들이 간이방식(재무회계방식)을 이용해 함으로써 물류비용산정의 도입을 촉진시킴.
- 물류비 산정자료를 물류의사결정과 채산분석을 위한 물류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토록함.

### ● 취약적 측면

- 실무적으로 쉽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식이 오히려 이용하는데 복잡성을 가져올수도 있음.
- 관리회계수준이 낮은 기업들에게 관리회계방식에 의한 물류비 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
- 일본의 통상산업성이 제정한 물류코스트 산정·활용 매뉴얼(1992년)을 참조함으로써 한국적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음.

## (3) 건교부 계산지침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하여 물류기능의 범위와 계산기준을 통일하여(제5조 제4항) 기업의 회계부문과 물류부문간 물류비에 대한 접근방식을 일원화시키고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1997년 8월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7-264호로 공포하였으며 3절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표)와 (별지)가 각각 2개씩 첨부되어 있다.

## □ 계산지침의 특징

- 정부 차원에서의 물류회계기준의 표준화
- 기업실무를 중시한 계산기준의 탄력성 부여
- 궁극적으로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수 있는 포괄적인 목적 설정
- 기업회계시스템에 준거한 물류비 인식기준의 제시
- 기업회계정보의 공유성 확대

## ● 기존계산기준과의 연관성 및 독자성 고려

### □ 계산지침의 평가

#### ● 공헌적 측면

- 정부기관의 지침으로서 근거규정의 준수를 통한 지침 개발
- 이론적 지침이 아닌 실무적 지침으로서 계산방식·방법제시
- 기업의 물류비관리 수준을 고려한 일반·간이 계산기준의 차별화
- 물류비의 정확한 계산을 위한 실태파악 목적의 지침 작성
- 기존의 물류비 계산기준과의 연관성 유지 및 독자성 개발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의 접근
- 회계부문의 기업회계시스템에 의한 자료입수 및 활용증시

#### ● 취약적 측면

- 중소기업에서도 적용하기 쉬운 물류비계산 일반기준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
- 업종별 물류비 계산을 위한 일반·간이기준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
- 물류비 계산의 간이기준에서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정되지 못하고 있음.

## 3. 개별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물류비를 산정하기 위해 통일성을 갖는 표준화가 바람직하지만 기업들이 아직도 물류회계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물류비 산정기준들이 실무적으로 기업에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에게 알맞은 물류비에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999년도 기업물류비에 산정기준에 의하면 독자적 물류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53.3%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의 물류비 산정기준 (KPC, 대한상의, 건교부 등)을 자신들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기업체들이 1999년도에 19.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개별기업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물류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73.2%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 개별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의 평가

### ● 공헌적 측면

- 개별기업이 종사하는 업종과 취급제품에 알맞은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물류비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음.
- 현행 물류비 산정기준 지침들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장점들을 상호보완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에 알맞도록 산정기준 지침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음.
- 물류원가 계산능력이 전사적으로 같지 않고 부서별로 기록이 있을시 각 부서가 수행하기에 편리하도록 차별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가 있음.

### ● 취약적 측면

- 기업별로 물류비 산정기준이 독자적으로 제정되어 많이 활용될수록 물류비표준 계산이 되지 않아 업종별·제품별, 물류비 산정, 국가물류비 산정에 통일성을 취할수 없음.
- 기업별로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간에 동일업종, 동일제품의 총 물류비 또는 기능별 물류비를 비교 할 수가 없음
- 개별기업들은 물류비산정의 목적이 서로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목적에만 부합하도록 물류비를 산정하므로써 물류관리수단을 위한 물류비 관리시스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음

## 4. 기업물류비의 추이분석

국내에서 조사된 기업물류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여러기관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각 조사기관마다 사용한 물류비 산정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있다.

1989년 한국생산성본부가 기업물류비 계산준칙을 제정하여 조사한 것이 최초의 기준성을 갖는 물류비 산정이라고 볼수 있으나 조사의 연속성이 없어 시계열 비교가 되지 못하였으며 199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물류비 산정·활용매뉴얼을 제정하여 매년 혹은 2년마다 기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물류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현재 국가물류비는 건설교통부(교통개발연구원담당)가 정부차원에서 산정하고 기업물류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민간차원에서 산정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매출액대비 물류비는 1987년 5.9%, 1991년 8.5%, 1996년 12.6%, 1997년 12.9%와 같이 계속 늘어나던 물류비가 1999년에는 12.5%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류비가 감소하게 된 것은 물류관리혁신에 따른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와 물류비 산정에서 실제물류비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발생 물류비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1999년에 운송비가 47.2%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보관 및 재고관리비 34.4%, 포장비 8.3%, 하역비 6.7%, 물류정보·관리비 2.7%, 유통가공비 0.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9년도 기능별 물류비·구조가 1996~1997년에 비하여 상당히 달라진 것은 출하물량당 물류비를 계산물류비가 아닌 실제 물류비에 근거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미국 및 영국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추세를 1991~1999년간 일본은 5.8%~6.58%, 미국은 7.34%~9.02%, 영국은 4.40%~5.18%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한국은 8.5%~14.3%를 점하였다. 각국은 조사대상기업, 물류비범위와 산정기준등의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국가간에 기업물류비의 단순한 비교는 불합리하며 다만, 대세를 관찰하는데는 참조가 될 수 있다.

## 5. 기업물류비 비교의 불합리성

- (1) 기업물류비의 자료를 국가간, 기업간에 산정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며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999년 기업들이 사용한 물류비산정기준은 독자적 기준이 53.3%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체계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당시 상황에 따른 것이 23.9%를 차지하였고 외부기관에서 공표한 산정기준을 자사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사용이 191.9% 그리고 외부기관의 산정모델을 그대로 사용은 2.9%에 지나지 않고 있다.
- (2) 외부기관에서 제정한 기업물류비의 산정모델에 의한 기준 또는 이 산정모델을 자사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기준에 따라 총액과 구조액면에서 차이가 발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999년도 기업들이 활용중인 물류비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의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34.2%, 다음은 대한상동회의소의 「기업물류비산정·활용 매뉴얼」27.8%, 한국생산성본부의 「기업물류비 계산준칙」16.5%, 일본가관(통산성, 운수성, 중소기업청)의 계산준칙 2.5%등이다.
- (3) 기업물류비의 산정기준이 관리회계방식이나 재무회계방식이나에 따라 총액과 구조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며 재무회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원가항목에 합리적인

배부계산을 얼마나 정확히 하였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된다(물류비 총액의 20%에서 70%수준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4) 물류비 산정범위를 조달, 사내, 판매, 회계, 폐기 등 어디까지 포괄하느냐에 따라 총액과 구조액면에서 차이가 발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999년도 물류비 산정영역에서 모든 영역 14.7%, 조달+판매90% 사내+판매5.5%, 판매17.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매출액대비 물류비에서 계산물류비와 실제물류비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의 물류비 관리시스템 여건상 기업물류비 산정은 정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999년도 매출액 대비 물류비 12.5%는 기업들이 실제 계산한 물류비 7.2%에 물류회계 여건상 산출되지 못한 물류비 부분(5.3%)만큼 (조사대상업체가 직접조사표에 기재)을 합제한 수치이다.

## 6. 기업 물류비 산정상의 취약성과 발전방향

### □ 취약성 1

기업들이 물류비를 계산할때 사용하는 산정기준이 통일성을 갖지 못하여 물류비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호비교에도 어려움이 있다. 물류비 산정기준에서 독자적기준, 외부기준, 외부기준 수정기준, 기준없음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업물류비 산정기준인 건설교통부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도 사용비율이 34.2%(1999년)정도이다.

### □ 발전방향 1

기업물류비의 산정기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교부의 계산지침이 가능한 한 많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권유, 홍보, 교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건교부의 계산지침으로 기업들이 물류비를 산정하는데 과목분류, 계산방법등에서 애로점과 문제점이 있는가를 항상 검토하고 이를 개선·보완해나가도록 해야한다.

### □ 취약성 2

기업물류비는 재무회계방식보다는 관리회계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성을 기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재무회계방식의 회계처리개념이 높은 반면에 관리회계처리개념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다. 관리회계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리부서와 물류부서가 물류비용의 원가회계를 위한 협력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발전방향 2

물류비산정을 위하여 물류부서의 인력들이 관리회계 전문가로 양성되어야 하며 경리부서의 인력들도 물류회계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물류부서와 경리부서간 관리회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양부서간에 친밀한 업무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 취약성 3

기업의 물류비 산정은 재무회계처럼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인 관리회계인 만큼 기업들은 자발적인 관심도가 낮아 물류비용산정에 적극성이 없다. 기업의 물류비 산정은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물류정책 수립에 대단히 중요한데 비하여 물류비산정을 위한 의무사항이나 유인책(혜택)이 없다.

## □ 발전방향 3

물류비산정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비계산자료를 재무제표 부속서에 포함시키는 의무사항이나 또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한다. 특히 혜택사항의 일환으로서 물류에 관련된 부문에 대하여 세제와 금융을 지원하도록 한다.

## □ 취약성 4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에 대한 원가계산에서 재무회계의 전표처리와 병행하여 또는 동시에 물류회계의 전표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류비원가계산을 위한 전표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 전산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 □ 발전방향 4

물류비 원가항목을 세분하여 이에 적용하는 전표제도를 마련하여 물류활동에서 비용이 발생할 시 즉시 원가계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물류비 원가항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건교부의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에 물류원가항목의 코드번호를 표준화하도록 함.

## □ 취약점 5

물류비 계산목적은 물류비 자료를 통하여 물류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물류비는 산정 하였으나 물류비 자료를 물류관리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비산정에서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 또는 기능별, 영역별, 물류비 구조등에 치중하고 있는데 반하여 물류관리항목, 물류예산관리, 물류의사결정분석등에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 □ 발전방향 5

물류비 자료를 관리항목별,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조업도별 및 관리가능성별로 분류하여 물류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물류비 절감과 물류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특히 물류관리시스템에서는 물류예산관리와 물류의사결정분석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교부의 「기업물류비계산에 관한 지침」에 이들에 대한 기준을 대한상의 「기업물류비·산정·활용 매뉴얼」처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 결어

물류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인가에 따라 총액과 구조 금액이 상당히 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산정기준에서도 원가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어느정도 세분화느냐 또는 관리회계방식과 재무회계방식을 어느정도 이용하였는가에 따라서도 총액과 구조금액이 또한 달라질수가 있다.

국제적으로 물류비 산정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각국이 자신에 알맞은 기준으로 물류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간 물류비 비교는 불합리하며 다만 참조사항으로 이용할수 있을뿐이다. 기업물류비 산정기준은 3가지 모델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아직도 23%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회계방식도 58.8%에 머물고 있어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이 낮아 국가간, 기업간의 물류비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1999년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물류비 12.9%, 매출액 대비 12.5%는 외국과 단순히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물류비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정확한 물류비를 산정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물류비 자료를 가지고 국가간, 기업간에 물류비 비교를 합리적으로 해야한다.

